

유럽화와 다원적 국제질서의 가능성

이 현 경 | 국제지역연구소 선임연구원

유럽화는 유럽통합 및 유럽지역화라는 시공간적 개념을 포괄하는 동적 복합개념이면서,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나 과정으로서의 유럽화가 갖게 되는 불완전성이란 한계는 개념의 지속적 확장과 발전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장점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유럽화와 지구화, 미국화, 서구화라는 4가지 개념을 상호 연결하여 비교하고 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유럽화는 양차대전 후 형성된 개념이나, 기원상으로는 유럽이 19세기까지 범세계적으로 활동영역을 넓혔을 때 이미 전개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유럽화는 서구화, 지구화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된다. 다만, 이 시기에는 유럽이 세계문명의 확립자이자 전수자라는 측면에서 유럽화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후 지구화가 미국화로 전환되면서 유럽화는 지구화와 동일시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지구화의 하부개념이자 때로는 대립적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지구화가 미국화를 의미하는 한 유럽화는 지구화의 대립축이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입되는 것이 표준이란 개념이다. 즉 지구화는 세계의 표준을 설정하는 세력에 의해 수행되는 동적 과정이며, 서구화나 유럽화, 미국화는 그러한 표준의 대상이 바뀌는 데 따른 결과이다.

유럽화는 2차 대전으로 세계적 역학관계가 바뀌면서 미국이 세계표준으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었다. 유럽은 더 이상 세계의 표준이 아니라, 독자적인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한 것이다. 유럽이 유럽화를 추구해 나가는 동안 지구화의 표준인 미국화와 유럽화는 협조와 갈등이 불가피했는데, 이러한 양 현상 간의 동태적 관계는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달리 나타나고 있다. 즉, 유럽화의 초창기에는 지구화와 순응, 조화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이며, 유럽화가 발전·심화되던 시기에는 부분적 충돌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미국중심의 지구화로 확대재편되는 탈냉전기 이후에 들어오면 유럽화는 한층 심화·발전해 가고, 미국화 역시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유럽화와 지구화의 갈등이 보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까지 유럽화는 지구화를 표방하는 미국화의 일방적 전횡을 방지하는 주요한 방파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유럽화는 단순히 유럽적 이해의 응집과 확보라는 사명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 권력의 일방적 독주에 대한 강력한 제동장치이자 세계 민주화 확산의 추진체라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 유럽화, 지구화, 유럽통합, 유럽 지역화, 세계 민주주의, 세계 다원주의, 미국표준, 유럽표준

I. 머리말

하나 된 유럽의 꿈을 안고 순항하던 유럽호가 뜻밖에 프랑스와 네덜란드라는 암초¹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제2의 유럽의 부활을 상상하는 유럽인의 꿈은 이대로 좌절되고 말 것인가? 세계의 관심은 절반의 기대²와 절반의 회의³ 앞에서 유럽의 앞날에 더욱 쏠리고 있다.

근대사회 이래 지속적으로 국제사회를 이끌어온 유럽은 양차대전이란 새로운 전환점을 맞으면서 세계질서의 중심적 역할을 상실하였다. 대신 미국은 유럽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그 이후 유럽이 지켜온 국제적 위상을 계속 확대, 발전시켜 왔다.⁴ 이 와중에 유럽은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려 하기 보다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권력구도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내부결속을 다시

1. 2005년 5월 29일과 6월 1일에 개최된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이 양국의 국민들은 유럽헌법에 대해 부표를 던짐으로써 유럽헌법을 통해 한층 강화될 유럽화의 앞날을 암울하게 했다. 물론 이러한 유럽헌법의 통과 실패가 곧 유럽화의 장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동안이거나 적어도 상당기간 유럽의 단일화, 통합화가 중단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과장이 적지 않다(*Time*, 2005. June 13).
2. 유럽통합의 역사를 회고할 때 그 진전이 항상 일정하고 낙관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는 한동안 경기의 순환곡선처럼 진전과 답보를 반복하던 종래 현상 중 그 저점, 즉 답보시점에 다시 도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만간 통합의 상승곡선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의 견해이다.
3. 이러한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시각은 상대적으로 비유럽인의 시각, 특히 미국과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유럽통합과정에서 보여준 순환곡선 과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좌절과정은 현실적 이해관계의 분명한 표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통합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회의적인 시각은 주로 유럽통합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 것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은 특히 터키의 유럽가입이 유럽인의 통합에는 오히려 역작용하고 있다고 본다(캐나다 밴쿠버 대학의 Torpey 교수는 2005년 2월 11일 그의 연구실에서 개최된 필자와의 면담에서 유럽의 이러한 시도가 상당히 부정적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견하였다). 이것은 궁극적인 인종문제와 더불어 유럽통합의 회의론에 더욱 무게를 심어주는 것이다.
4. 오늘날 세계질서에 대해 Pax Americana라고 부르는 것은 유럽을 포함한 다원적 국제체제가 아닌 미국주도의 단일적 세계질서를 인정함에 따른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제국이란 용어의 사용을 꺼리는 보수적 미국의 군사전략가조차 더 이상 미국에 대해 제국이란 이름을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의 태도는 베를린 장벽의 해체, 뒤를 이은 사회주의권의 붕괴라는 탈냉전의 세계적 여파를 받으면서 점차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주도의 세계적 표준을 강화하는 지구화에 유럽적 통합력으로 맞서면서 새로운 유럽적 표준을 다시 한 번 구가하려는 보다 적극적 의지로 선화한 것이었다. 유럽의 부활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런 맥락 위에서였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유럽의 이상이 또 다시 흔들리고 있다. 과연 유럽은 부활할 수 있는가? 21세기 세계정치무대에서 이 질문은 적지 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유럽의 부활 가능성을 유럽화와 관련지어 살펴보고, 이에 따른 세계질서의 다원적 가능성을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려는 유럽화(Europeanization)는 유럽적 질서나 유럽체제와는 개념을 달리한다. 흔히 유럽화의 개념 자체가 갖는 모호성이나 비정의성 때문에 한계를 갖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유럽 내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방식의 거버넌스 변화나, 제도적 모색을 고려한다면 포괄적 의미의 유럽화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즉, 비록 일정한 한계를 갖긴 하지만, 유럽화라는 개념은 여전히 유럽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도구라는 점에서 사용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다루어 볼 것은 유럽화에 대한 본 논문의 개념정의에 입각해 유럽화와 지구화의 상호역학을 조명해 보려고 한다. 현 세계정치를 주도하는 하나의 흐름으로서 지구화는 전 세계적 질서형성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구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은 비단 유럽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유럽적 대응은 상대적으로 특수한 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고는 유럽이 유럽화라는 독자적 개념으로 지구화와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 또 이러한 두 가지 개념이 상호 호응하는 점은 없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유럽화라는 현상이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 세계질서와의 관련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지역에서 독특하게 전개된 유럽화는 단순히 유럽지역의 지역주의만을 양산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구화라는 거시적 현상에 대응하는 하나의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

구는 유럽화가 세계 권력구도를 어떤 형식으로 재편해 왔고, 또 해 나갈 것 인지를 지역주의와 다중심화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유럽화로 야기된 세계적 권력이동이 낳게 된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유럽화는 종래 패권중심의 세계질서를 지역중심의 민주질서로 전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유럽화로 인해 유럽 내부 질서의 민주화까지 달성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세계적 차원의 권력구도가 지역차원의 다원성을 띠면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유럽화는 유럽 내부에서는 통합화라는 권력집중을 요구함과 동시에 내적 민주성의 결핍이란 모순을 노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이율배반적 유럽화는 앞으로 유럽지역 전체 차원의 민주화, 그리고 하부지역단위의 다원화와 충돌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세계질서를 재편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분석해 볼 것이다.

II. 유럽화의 개념과 특징

1. 개념으로 본 유럽화

유럽화를 통해 유럽의 변화와 그 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럽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유럽화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장 기초적이라 할 수 있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유럽화란 태도나 특성에서 유럽인과 같이 되어가는 과정 혹은 유럽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애매하게 남겨지는 것은 과연 유럽인이란 무엇이며, 유럽문화란 또한 무엇인지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전적 정의 역시 유럽화에 대한 명료한 개념을 설정해 주기보다는 막연히 정의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또 다른 개념정의에서는 유럽화를 특정한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과정(Buller and

Gamble, 2002: 17)으로 보기도 한다. 여기서는 도대체 특정한 효과가 무엇 인지를 재정의 하지 않으면 유럽화에 대한 이해가 곤란하다는 한계가 드러난다.

가장 흔히 정의되는 개념으로서의 유럽화는 대략 5가지로 분류되어 이해된다. 첫째, 유럽 차원에서 통치의 제도적 발전으로 정의되는 경우이다(Cowles et al., 2001: 13-15). EU의 성립은 이의 구체적 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럽화는 국내정치가 점차 유럽정치의 영향력하에 종속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이다(Dyson, 2000: 23). 대개 유럽화를 논의하는 초기 문헌들에서는 유럽화가 유럽연합이라는 정치체의 영향력에 점차 수렴되면서 단일한 유럽적 통치체의 형성으로 이행해 가는 과정이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나온 개념이다. 셋째, 유럽의 정치통일의 달성을 표현하는 것이다(Evans and Davies, 1999: 361-385). 이러한 유럽화의 개념 역시 유럽의 정치통합을 염두에 두고 설정된 개념으로 보이지만, 여기서는 정치통합 이외의 다른 부분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넷째, 유럽의 시민권(Checkel, 2001: 21) 혹은 유럽정체성(Cowles et al., 2001: 13-15)의 의미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 경우 유럽화는 유럽인과 시민권이라는 또 다른 개념으로 확장되며, 특히 유럽의 정체성은 유럽문화의 단일성, 동의성, 포용성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통합의 문화적 전이로 볼 수도 있다. 다섯째, 유럽화는 국내정책책략의 연막술(Dyson and Featherstone, 1999: 34)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 개념은 사실상 유럽화라기보다는 유럽화라는 명분으로 국내정책의 난맥상 내지 오류의 가능성을 해외로 전이하는 하나의 수단적 개념이다. 따라서 이 경우 유럽화란 사실상 유럽화의 실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정의된 개념을 종합해 보면, 유럽화란 EU의 추진방향, 규정, 제도적 구조가 국내적 차원에서 적용되거나 수용되어가는 과정이며, 이와 동시에 개별 국가의 공유된 가치, 공식·비공식적 규칙, 담론, 정체성, 수직·수평적 정책 전이 등이 EU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기도 하다(Howell, 2002: 16). 이러한 유럽화의 개념은 올센(Olsen, 2002: 921-952)이 정의하고 있는 유럽화와도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는 유럽화를 초국가기구

와 국가 간의 수평적 관계양식으로 각국이 초국적 통치를 능동적으로 수용해 가는 과정이라 이해한다. 다시 말해, EU회원국이 초국적 영향에 노출되면서 국내의 공공정책 형성과 시행에 국경 밖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미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유럽화는 정체 내에서 EU와 같은 초국가와 기존의 민족국가 그리고 여타 행위자 간 연계가 심화되면서 초국가와 국가 내부에서 동시에 야기된 정치적 변화이자 유럽연합수준에서 제도의 변화와 다국적 정책을 통한 자원의 재할당이라는 법적, 정치적 행위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다양성까지 반영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이 갖는 위험성이 적지 않게 지적되기도 하는데, Buller(Buller)와 Gambler(Gamble)에 따르면, 무엇보다 유럽화라는 개념은 학문적 유행에 따른 시대적 산물일 수는 있으나, 개념의 보편화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독립변수로 이해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유럽화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거나, 애매한 개념의 유희로 설정해 두기보다는 유럽통치의 독특한 형태가 국내정치 측면으로 변형되어 가는 상황(Buller and Gambler, 2002: 18)으로 구체화시켜 정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유럽화란 사용되는 상황과 집필하는 의도에 따라서 상당히 다의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만큼 학문적 용어로 사용되기에는 약점이 적지 않음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유럽화의 개념에 대한 또 다른 혼란은 과연 유럽화를 유럽통합이나 유럽지역화라는 개념과 어떻게 구분지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 개념적 역사를 본다면 유럽통합이란 용어는 훨씬 이전에 등장하여 이미 학문적 객관성을 나름대로 확보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유럽화란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 것은 두 가지 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유럽통합이란 개념이 본래 의도했던 사안이나 진행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라면 유럽통합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개념의 형성은 당연할 수 있다. 둘째는 유럽통합이란 진부한 개념에 식상한 일부 학자들이 학문적 유행으로 새로운 개념을 창출했을 가능성이다. 이 경우는 유럽통합과 유럽화, 또는 유럽지역화와 큰 차이가 없는 용어상의 혼란만 조장할 뿐 이므로 유럽화라는 용어의 등장은 단순히 학문적 유행만을 표현한 채 단시일

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첫 번째의 경우와 관련지어서 유럽통합과 비교해 살펴보기로 하자.

유럽통합이란 개념은 대등한 관계에 있는 독립국가들 사이에 평화적이고 자발적 합의에 따라 대상부문을 선정하여 통합 내지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김세원, 2004: 4)이다. 이 경우 유럽통합의 가장 큰 의미는 유럽의 단일성, 통일성에 놓이게 된다. 이런 맥락은 유럽화가 유럽의 단일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면에서 동일하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유럽지역화라는 개념 역시 유럽이란 특정 지역의 단일성과 통일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럽통합의 단일성, 통일성을 중심으로 이해한다면 유럽통합은 곧 유럽지역화이며, 유럽화와 등치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라면 물론 유럽화라는 개념의 독자적 형성은 사실상 유행어의 등장 이외에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통합을 유럽국가들 간의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범주와 대상의 설정이라는 조건을 부과했을 경우, 이들 개념 간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생긴다. 즉, 유럽통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와 어느 국가까지를 유럽통합에 수렴해 낼 것인가를 전제로 한다면 이들 개념에는 상이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렇게 유럽통합의 범위를 설정하게 되면, 유럽지역화라는 본래의 공간적 개념은 상당히 축소된 형태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럽지역화는 이들 개념 중 가장 협의의 공간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유럽통합이란 개념의 경우인데, 유럽통합 역시 완결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불완전하고 진행 중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통합의 구체적 발현체로서의 EU의 등장은 곧 유럽통합의 범위를 스스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현실화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EU의 중앙권위체화 내지 연방화는 곧 유럽통합의 완결시점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럽지역화와 유럽통합이란 개념과는 달리 유럽화는 유럽적 표준⁶⁾의 세계화라는 의미로 확대해석 될 수 있는 개념이다.

6. 본 연구에서 다루는 '표준(Standard)'이란 합의나 권위를 가짐으로써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기준이나 준거틀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C. Tilly는 '대표성의 확

따라서 유럽화는 지역적 경계를 초월하여 범지구적으로도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유럽통합의 종속적 변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럽통합의 독립변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개념을 설정한다면 유럽지역화와 유럽통합, 유럽화는 상호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그만큼 유럽화라는 개념이 갖는 함의는 복합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럽화란 개념이 갖는 포괄성, 진행 과정성, 복합성 등이 갖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유럽통합이나 유럽지역화라는 개념 대신 유럽화라는 개념으로 분석해 나가려고 한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유럽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유럽적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으로 개념화할 것이다.

2. 유럽화의 특징

유럽화를 유럽적 표준의 설정과 그 확장으로 이해할 경우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유럽적 표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표준에 대해서는 이미 개념정의를 내린 바 있듯이 합의나 권위를 가짐으로써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기준이나 준거틀이다. 이 경우 유럽적 표준은 유럽의 개별 주권국가와 시민들이 동의하고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성립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유럽적 표준을 중심으로 한 유럽화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올센(Johan P. Olsen)에 따르면 유럽화란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을 근거로 구분되고 있다. 즉, 첫째, 유럽화는 서유럽을 포괄하는 단일의 정치적 공간으로 초국가기구는 물론이고 주권국가뿐 아니라 국가 내 하위정치단위체를 모두 포괄한다. 둘째, 유럽화는 유럽차원의 제도화된 통치의 발전이다. 여기서 제도란 법적 기구와 일상화된 규범 그리고 암묵적으로 내재된 신념 모두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셋째, 유럽화란 유럽에서 책임과 권력의 분할을 통

장(Tilly, 1990: 60) 혹은 '동질화'(Tilly, 1990: 116)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은 주도적 힘(power)의 확보에 의해서만 성립될 수 있으며, 보편성의 획득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기도 하다. 김명섭 역시 지역적 표준, 국가적 표준 등을 논의한 바 있다(김명섭, 2001: 87).

한 다층화된 통치를 말한다. 물론 다층화란 중앙집권적 과정과 지방정부의 자치를 모두 포함한 단일성과 다양성 간의 균형적 통치이다. 마지막으로 유럽화는 통합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한층 향상된 유럽의 정치적 프로젝트⁷로 다양한 내외부의 압력에 대처한다는 의미와 목적을 전제한다(Olsen, 2002: 921-952).⁸ 이를 통해 보면 유럽화는 거대한 유럽지역의 형성이나 정치적 통합체의 달성 이상의 포괄적이고 광의적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럽화는 다음과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 특징을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유럽화란 정치적으로 유럽지역의 중앙 집중적이고 단일적 통치기제의 성립이란 특징을 갖는다. 그 구체적 발현으로 EU의 성립을 들 수 있다. 그러나 EU는 완전한 형태의 연방으로 볼 수는 없으며, 과도기적 단계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EU는 명백히 규정된 최고권위도 아니고, 완전히 중앙집권화 되지도 않았으며, 합법적 물리적 수단을 확보하고 독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Schumitter, 1996: 131). 그러나 EU는 결정권이 있고, 갈등을 해결하며, 시장을 규제하고, 세금을 징수할 뿐 아니라, 외교대표를 파견 유치할 수 있다(Schumitter, 1996: 132)는 점에서 통치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이 하나의 연방정부를 형성할 때 EU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치체로 성립 가능하지만, 다층통치가 인정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EU는 잠정적이고 과도적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드러나듯이 유럽화의 특징은 정치적으로 완료적 의미가 아닌 진행과정의 의미를 갖고 있다.

경제적으로 유럽화란 유럽의 단일시장을 특징으로 한다. 이 경우 유럽의 단일시장이 단순히 국가 간 협력을 토대한 것이라면 기존의 국제협력기구와 달리 유럽화의 특징으로 설명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 예로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도 이미 ASEAN이나 NAFTA, ASEM 등과 같이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제는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의 단일시장이 유난히 강조되고 독자적 특징을 보여주는 이유는 단순히 국가 간 협력

7. 원래 올센(Olsen)이 지적한 유럽은 서유럽만을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유럽의 정치적 프로젝트 역시 서유럽 지역만을 위한 것이었다.

8. 특히 이 부분은 유럽학회 웹사이트의 정리에서 도움을 받았다(www.eu.or.kr 참고).

을 중심으로 형성된 단일시장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즉 유럽의 단일시장은 개별 국가의 경제적 결정권을 이미 상당히 잠식하는 독자적 상위경제체로서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EMU의 성립은 유럽경제단일화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중요한 기제라고 하겠다.

사회적으로 유럽화란 유럽 내 개별 국가의 시민들이 유럽시민권을 획득해 가는 과정을 특징으로 한다. 이 경우 유럽시민권은 일차적으로 EU와 같은 유럽정치체의 존재를 전제로 구성된다(Shaw, 1998: 299). 시민권은 일반적으로 정치, 시민, 사회의 3가지 권리를 내포(Wiener, 1997: 532)하게 되지만, 시민권의 사회적 권리는 대략 3가지 측면을 의미한다. 첫째는 시장 시민권이며, 둘째는 산업 시민권, 셋째는 복지 시민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Shaw, 1998: 301). 이러한 시민권을 획득하는 과정은 유럽의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으로 살펴볼 때 유럽화란 유럽정체성⁹의 형성, 즉 유럽인으로서의 의식강화란 특징을 갖는다. 여기서 말하는 유럽정체성이란 개별 국민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유럽 지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 유럽지역성은 개별 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출신 지방, 더 나아가 국가에 대해 보내는 충성도를 유럽적 차원으로 확대한 심리적 경향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근대적 차원의 개별 국민 국가, 혹은 민족국가에 대한 충성도와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¹⁰

이상에서 유럽화의 특징을 다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 대표적인

9. 흔히 유럽정체성에 대해서는 고정불변의 '실재'인지, 아니면 유무형의 사회적으로 공유된 아이디어 등에 의해 가변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Wendt, 1999: 1)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대상에 의해 상호주관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는 후자의 견해를 선택한다. 이러한 인식은 진시원(2003: 46-52, 71-72) 참조.

10. 현재까지 유럽 정체성의 형성과 관련해서 전개되어온 논쟁을 보면, 유럽통치체에 대한 정체성과 그 의미부여보다는 국민국가에 대한 정체성에 더 무게중심이 두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Smith(1992), Deflem and Pampel(1996)"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유럽정체성을 국가정체성과 대립적 구도에서 보지 않고 있다. 다만, 유럽의 개별국가들의 정체성이 통합되고 동질화되면서 유럽정체성으로 표준화되어 가는 것으로 이해한다.

유럽적 표준이 설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정치, 경제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등의 표준이,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인권, 평등주의 등의 표준이 그것이다. 이렇게 보면 유럽화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화와 맞닿아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서구화와 또 한편으로는 미국화에도 구분이 모호해지게 된다.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럽화의 기원이 단순히 양차대전 후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근대화의 역사와 더불어 진행된다는 점을 이해함으로써 알 수 있다. 곧 근대의 초창기에 유럽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자국의 표준을 만들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주도권을 갖게 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표준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서구화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확산¹¹⁾되었으며,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으로, 더 나아가 양차대전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서구화가 갖는 긍정적 기제는 여전히 세계적 보편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전개되는 유럽화가 이러한 서구화의 부분적 연장선에서 있음은 불가피한 사실이다. 그런 만큼 서구화의 양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화 역시 세계화의 보편성이라는 점에서 유럽화와 일맥상통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후 제기되기 시작한 유럽화는 세계화된 서구화와는 달리 유럽국가 내부의 통합화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며, 그 점에서 유럽화는 아직 세계적 보편성보다는 유럽적 특수성에 더 기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적 현상에 국한되고 있다. 그럼에도 유럽화는 유럽적 표준을 확립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단일성과 통일성, 나아가 보편성을 지향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유럽화는 오로지 단일적 통합성이나 통일성에만 중점을 두기보다는 다양성 속의 단일성이라는 점에서 여타의 현상과는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11. 서구화란 서유럽적 표준의 세계적 확산, 즉 세계화를 의미한다.

III. 유럽화와 지구화의 상호작용

유럽화와 지구화는 때론 대립적 개념으로, 때론 상호보완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앞 절에서 유럽화에 대한 개념을 논의해 보았지만, 이것이 지구화와 어떻게 상호역학을 이루어 나가는지는 좀 더 조심스럽게 논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¹²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구화에 대한 개념 역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기든스가 정의하고 있는 바로는 지구화는 개별지역들(localities)을 서로 연결시키는 광범위한 사회관계가 보다 확대 심화되면서 특정지역의 일이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에 의해 형성되는 현상으로 본다(Giddens, 1990: 64).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지구화는 적어도 초지역적 특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상호 연결되는 관계¹³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리적 원근성이 더 이상 상호연결성의 제약이 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반해 로버트슨은, 지구화란 세계의 압축(compression)과 전체로서 세계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는 것(Robertson et al., 2000: 8)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경우 관심을 끄는 대목이 바로 세계에 대한 의식의 강화라는 부분이다. 그는 단순히

12. 지구화나 유럽화가 21세기 국제질서의 재편과 긴밀하게 연동된다는 점에서 최근 학계의 관심이 되고 있는 국제질서에 대한 패러다임 논쟁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논쟁에서 보면, 3가지 패러다임이 핵심적 쟁점으로 부각된다. 미국을 기준으로 하는 제국패러다임과 유럽연합과 같은 연합패러다임 및 통합 국제기구의 창출을 전제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그것이다. 현재로서는 어느 패러다임이 적실성을 갖는지 명료하게 가늠하기 쉽지 않지만, 대체로 제국 패러다임에 무게중심이 두어지고 있다(Negri and Hardt(2000)가 대표적임). 그러나 본고는 유럽화를 통한 세계질서의 변화가능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연합 패러다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목적상 유럽화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질서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논외로 한다.

13. 기든스는 물론 광범위한 사회관계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미 70년대 말에 월러스타인은 경제적인 관계에 초점을 둔 세계체제(Wallerstein, 1979)를 논한 바 있으며, 신현실주의자로 분류되는 길핀같은 학자는 경제중심으로 국제관계가 재편된다는 생각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국제질서의 안정성은 특정국가의 군사력과 권력에 의존한 헤게모니에 달린 것으로 보기도 했다(Gilpin, 1981). 당시 이들 학자는 오늘날의 지구화논쟁과 직접 관련지어 이같은 주장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의식적으로 하나의 단일적 세계체제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지구화논의의 선구적 흐름으로 지적될 수는 있을 것이다.

초지역적 특성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의식이란 개념을 끌어내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은 지구화의 논의에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만약 지구화가 단순히 지역성만 극복하고 연결성만 긴밀화된 것이라면, 지구화의 역사는 이미 근대화¹⁴의 역사와 맞물려 전개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인류가 하나의 의식으로 지구화를 수용하고 이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면 그 시기는 아주 오래전으로 역류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일반적으로 지구화란 현대세계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사회 간의 상호연결이 심화된 연결의 다면성(Mcgrew et al., 1992: 23)과 이에 따른 세계의식의 강화과정으로 볼 수 있겠다. 즉, 지구화는 경제의 지구화에서 비롯되어 국가 간 상호연계성이 심화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지구화는 1980년대 말 사회주의 권의 붕괴와 미소냉전체제의 종언 및 이에 따른 전 세계 질서의 자유화 및 시장화라는 세계사적 현상을 통해 한층 강화된 보편적 흐름을 말하는 것이다 (강정인, 1998: 64).¹⁵

이렇게 이해할 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과연 지구화와 유럽화를 동일한 수준에서 논의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무엇보다 지구화는 단시일 내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역사성 속에 진행되어온 현상이며, 동시대에는 전 지구적 현상으로 보편화됨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유럽화는 유럽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배경으로 한 개념이며, 그나마 하나의 보편 현상이 아니라, 현재 형성중인 의도적 현상이라고 볼 때 이 둘 간의 관계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실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지구화를 이렇게 이해할 때 유럽화는 지구화와 관련하여 흔히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지구화의 지역적 변수라는 점과, 둘째, 지구화에 대한 유럽의 구체적 대응이라고 보는 점, 셋째, 지구화라는 광의의 현상과는 별개로 전개되는 유럽적 상황과 맥락 내에서의 독자적 반응이라고 보는 것이 그것이다(Wallace,

14. 실제로 지구화에 대한 논의는 근대화와 상당히 맞물려 전개되어 왔다. 기든스나 로버트슨도 그런 경향을 대표하는 학자에 속하는데, 이들이 지구화의 발생추동력으로 보는 근대화는 상이하다.

15. 물론 이때 논의되는 보편성은 가치의 당위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역사나 관습을 통해 현실화된 실제로 이해되어야 한다(佐伯啓思, 1995: 111). 이밖에 지구화를 촉진시킨 과정으로는 기술혁신과 분산, 근대화 등의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2000: 159-160). 이하에서는 이러한 유럽화와 지구화의 관계를 중심으로 시간적 과정에서 어떻게 상호 역학작용을 이루어 왔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1. 유럽화 형성기의 지구화와의 동학: 유럽지역의 생존화로 추구과정

초기 유럽화는 전후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 유럽적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양차대전 전까지 세계질서를 주도하면서 ‘서구화’라는 세계의 표준으로 기능해 왔던 유럽은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파괴를 경험하였다. 이제 유럽은 더 이상 세계의 표준이 아니었다. 대신 유럽은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적 표준을 수용해야 했으며, 서구화란 이름으로 전개되어온 지구화는 미국화와 소비에트화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유럽은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화에 유럽지역의 독자적 세력화를 추구하면서 대항하기보다는 패전 이후의 전변된 국제체제 속에 순응하면서 새로운 유럽의 생존을 모색하였다.

이 당시 유럽인들이 강하게 열망했던 것은 평화로운 유럽의 재건이었다. 유럽인들에게 평화로운 공동체 형성이란 사유¹⁶는 낯선 개념은 아니었다. 유럽은 근대사회의 형성 이후 줄곧 세계질서를 주도해 오면서 개별 민족국가로 나뉘어서 끊임없이 분쟁을 경험해 왔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분열과 갈등의 종식을 희망하는 유럽인의 이상 역시 오랜 역사 속에 축적되어 왔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초기 유럽화는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던 이상주의자들의 열망과 패전의 후유증에서 최소한의 생존이나마 보장받아야 하는 현실주의자들의 이해관계가 적절하게 결합된 결과라고 하겠다. 이 경우에도 유럽화는 기존의 서구화와 완전히 단절된 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구화로 보편화된 서구적 전통 위에서 전후 유럽적 특수성을 살려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유럽화로 전이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

16. 흔히 유럽이념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유체계는 이후 유럽통합의 중심적 토대를 제공했다. 유럽이념과 관련해서는 Brun(2002: 20-21), 노명환(2001: 71), Kevin Wilson (2002: 96) 참조.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은 새로운 세계질서를 주도해 가면서 국제적 냉전체제를 형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럽은 이들이 형성해가는 국제적 냉전체제 속에 분열되어야 하는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오늘날 유럽화라고 불리는 유럽통합의 전개는 이 중 미국 진영에 속하던 서유럽 지역에서만 가능하였다. 이후 서유럽은 자신들의 평화공동체 이상을 독자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게 되는데, 이 때 미국의 지원은 필요불가결한 존재였다. 미국은 소련과의 대립구도 속에서 전후 세계질서를 재편하였으므로 자신의 진영 내에 수렴된 유럽지역의 원상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 그 일환으로 미국은 유럽국가 간에 활성화되고 있었던 정치적 통합화, 즉 유럽화를 적극 지원하였는데, 이것은 유럽의 부활 자체에 의미를 둔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대소견제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초기 유럽화는 미국이 주도하던 지구화인 미국화¹⁷와 대립되기보다는 조화 속에 전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해 소련 측 진영에 포함된 동유럽의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동유럽 간 통합화를 피하기보다는 소련체제에 내부적으로 응집, 수렴되는 현상을 경험하였다. 유고슬라비아와 같이 일부 이탈현상이 있긴 했으나, 이러한 현상은 소련의 강압으로 저지되었다. 따라서 동유럽지역에서는 독자적 유럽화가 진행될 수 없었다. 대신 동유럽에서는 소련식 사회주의에 기초한 소비에트화가 적극 추진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전후 유럽지역은 미소에 의한 세계적 냉전의 전개로 인해 서유럽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화가, 동유럽에서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소비에트화가 각각 진행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Borneman and Fowler, 1997: 488). 이처럼 초기 유럽화의 동학은 유럽 자체의 생존활로를 모색하려는 노력에서 기인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당시 국제화의 추진세력이자, 표준으로 자리매김했던 미국에 의한 물질양면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초기 유럽화는 지구화와 상호 순응하며 협력적 관계를 보였던 것이다.

17. 하나의 현상으로서의 지구화는 탈냉전 이후 새롭게 전개된 것이 아니라 이미 16세기 이래 자본주의 체제의 형성과 맞물리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후 전개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는 결국 미국적 표준의 지구화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미국화에 다름이 아니었다.

2. 유럽화 발전기의 지구화와의 동학: 유럽의 내적 표준화를 위한 갈등과 협력

1951년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6개 유럽국가로 시작된 ECSC의 형성 이래 유럽국가 간의 협력이 더욱 증대되면서 유럽화는 초기 평화적 공동체 실현이란 정치적 목적에서 점차 유럽의 번영이란 경제적 목적으로 전환되었다.¹⁸ 1957년 로마조약을 거치면서 유럽화는 유럽 서부지역의 일정 세력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는데, 여타 유럽 국가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참여는 선택적 조건으로 존재했다. 이후 유럽화로부터 혜택을 입기 시작한 국가들은 적극 동참하여 유럽화의 조류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에 반해 유럽화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영국은 그 대표적 경우에 해당한다. 영국은 유럽화가 단순히 유럽 국가들의 협력과 호응에 의해서, 특히 유럽의 발전과 번영 및 평화를 위해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대륙 유럽 국가들의 표준을 유럽전역에 설정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직감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유럽화를 추진한 직접적 세력에 포함되지 않은 영국은 결국 유럽의 내적 표준성립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중심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받기보다는 오히려 변방으로 전환될 것에 대한 우려를 갖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영국의 판단은 유럽화에 동조하고 적극 참가하도록 결정하기보다는 영국이 중심이 된 독자적 유럽세력의 확보를 부추기게 되고, 이에 따라 EFTA¹⁹라는 별도의 유럽기구를 형성하는 촉진제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유럽화가 이중으로 성립되는 한 원인이 되었으며, 유럽화의 내적 표준화를 위한 갈등과 경쟁으로 전환된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국의 노력은 그다지 효율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말았는데, 1972년 마침내 영국이 우여곡절 끝에 EC에 가입하여 유럽대륙국가의 표준을 수용함으

18. 유럽통합역사에 대해서는 Lundestad(1998), Gasteyger(1990) 참조.

19. 유럽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하는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는 대륙유럽국가들이 형성한 EEC에 대한 영국적 대응이다. 영국이 대륙적 유럽화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 길을 선택한 것은 첫째, 미국과의 특수관계, 둘째, 주권에 대한 애착, 셋째, 영연방지역과의 양립성 등을 고려한 결과였다(김세원, 2004: 21).

로써 정리되었다. 이러한 EFTA 국가들의 EC가입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보다 경제적 이유²⁰에서임은 분명하다. 어쨌던 영국중심의 EFTA가 사실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유럽대륙 중심의 유럽화에 합류함으로써 유럽화는 더욱 탄성을 받아 확대발전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유럽의 내적 표준은 해양세력인 영국이 아닌 대륙세력인 독불연대에 맞춰졌으며, 이 시기 유럽화는 결국 독불연대를 통한 대륙 유럽화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 입각한 것이다. 영국으로서의 마지막 패배 유럽화에 편성²¹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유럽의 이러한 노력을 지켜보는 또 다른 우려어린 시선이 있었는데, 미국이 바로 그 대상이다. 미국은 초기 유럽화가 시작될 무렵 사실상의 핵심 지원국으로 존재했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던 미국이 유럽화가 점차 확산되던 이 무렵에 들어오면 더 이상 유럽화에 친화력을 갖고 후원 협력하는 세력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갑자기 자신들의 태도를 표변한 것이었을까? 엄격히 말한다면 이 시기 미국이 유럽화에 다소 소원한 경향을 보인 것은 초기의 협조적인 태도가 변화한 것이 아니라, 유럽화의 성격이 변화한 것에서 기인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미국은 전후 유럽이 물심양면으로 소진한 상태에서 대소견제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에, 전후 유럽인들에 의한 자발적 유럽화 노력을 지원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는 미국화로 대변되는 지구화가 유럽화와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으며, 순조롭게 협조할 수 있는 근인이 되었다. 그러나 유럽화의 진전으로 인해 한층 강해진 유럽은 더 이상 미국의 통제력 내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전환되었다. 나아가 세계의 표준으로서 행해지는 미국의 일방주의는 이를 견제하려는 유럽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도 하였다(Kagan, 2003: 71). 이제 유럽은 세계

-
20. 실제로 EFTA는 영국 등 회원국이 EC에 가입한 이후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여기에는 무엇보다 정치적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이들은 서방진영이나 동구진영에 속하기보다는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국가가 대부분이었던 때문이다. 그러나 냉전체제 이후 이들은 경제적 이유로 EU에 포함되었다(Norman et al., 1992: 448).
21. Gowland and Turner(1999)의 저서에서는 영국의 EC참여에 대한 불가피한 결정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적 표준으로서의 미국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개되는 유럽화는 미국화 내에서가 아니라, 미국화를 뛰어넘는 것으로서 미국으로서는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따라서 유럽화가 확산되고 독자적인 유럽의 지역화가 전개되면서 유럽화는 미국의 입장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제 유럽은 단순히 미국이 재편한 세계질서 속에 안주하는 지역세력이 아니라, 미국의 질서에 도전하는 독자적인 지역세력으로 탈바꿈한 것인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소련이란 적대진영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서방’개념에 입각한 상호연대는 필수적이었으며, 경제적 불협화음과는 달리 정치·안보적으로는 여전히 협력관계를 구가하는 상태였다.

3. 유럽화의 확대심화기: 유럽화와 지구화의 갈등과 협력을 통한 이중주

유럽화의 확대심화를 위한 계기가 된 것은 무엇보다 미소양극체제의 한 축을 담당해 오던 소련과 그 산하세력, 특히 동유럽권의 붕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냉전질서의 해체는 곧 미국적 표준의 세계화를 의미하며, 이것은 지구화라는 이름으로 더욱 강도 깊게 확산되어갔다. 이러한 미국적 표준의 지구화는 유럽 국가들에게는 한편으로 위협이자 위기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했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은 기존의 유럽화를 해체하고 새롭게 재편되는 세계질서에 개별적으로 순응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유럽화를 더욱 강화하고, 유럽의 독자적 질서를 세계화하려는 노력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유럽의 선택은 당연히 후자 쪽에 모아졌다. 이제 유럽은 더 이상 미국적 질서에 일방적으로 순응해야 할 이유가 없었으며, 유럽식의 독자적인 생존이 절실하다고 여기게 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새로이 유입되는 동유럽권은 유럽화의 심화확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

22. 냉전시대에는 적어도 미국과 유럽이 소련이란 외부적 적대세력에 대항하여 ‘서방세계 통합’ 혹은 ‘상호연대’란 안보목표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서방개념은 소련의 붕괴로 인해 동구권이 해체되면서 현저히 약화되었다(Kagan, 2003: 136-142).

나 세상의 모든 일이 빛과 그림자를 갖는 것처럼, 동유럽권의 유럽화에의 결속이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 예로 이들의 유입은 유럽화의 전반적인 확산에 힘을 실어주고, 미국중심의 단일적 세계질서 재편에 유럽지역의 제동장치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지만, 역으로 유럽 내부 국가 간의 갈등과 간격을 넓혀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유럽화의 확대심화는 유럽화가 하나의 유럽적 대세임을 확인해 주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했지만, 미국화로 표현되는 지구화라는 또 다른 추진력과는 더욱 심하게 갈등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²³ 이것은 유럽화의 극단적 확산은 곧 지구화, 유럽적 표준의 세계화를 의미하며, 현재 전개되고 있는 미국적 표준으로서의 지구화와 배치되고 경쟁하는 개념이기 때문이었다.²⁴

변화하는 국제체제 속에서 유럽은 개별 과편화된 국가로서의 대응을 자제하고 통합체로서의 유럽을 형성함으로써 점차 중심적 위상을 확보해 가고 있다. 유럽화의 현재적 실체는 EU의 강화이다. 물론 EU의 완결성은 논리적으로 볼 때 연방화의 성립이 될 것이다. 이 경우 EU의 연방화는 유럽통합의 종극에 해당된다. 그러나 연방화된 EU가 세계적 주도세력으로 부상하고, 그에 따라 세계의 표준이 된다면 그 때는 유럽화의 결정체가 세계의 표준이 되는 유럽화의 지구화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진행상태로 보아 유럽화가 곧 지구화로 될 가능성은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 유럽이 새롭게 부활하여 세계적 표준으로 재등장하도록 현재의 표준국가가 그대로 용인하지도 않겠지만, 유럽국가 스스로도 정치, 군사적 팽창에 대한 야심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Kagan, 2003: 97). 게다가 유럽은 외적 통합과 함께 내적 다면성을 여전히 소유한 복합적 존재이다. 다시 말해 유럽은 대외적으로 통합된 국제지역체로서도 활동하지만, 내적으로도 다양한 국제관계를 안고 있는 다면적 존재라는 것이다. 그 예는 EU의 내적 복합성으로도

23. 유럽의 반미정서, 반세계화주의는 미국패권주의에 대한 거부로 해석되기도 한다 (Revel, 2003: 79).

24. 그러나 한편 유럽화는 지구화의 촉진제로서 기능하는 역설을 보여주기도 한다. 다시 말해 유럽화는 지구화의 지역적 변수라는 것이다(Wallace, 2000: 159-160).

설명될 수 있다. EU의 성립, 즉 유럽화가 지구화의 부분적 대응으로 시작되었음에도, EU의 회원국으로 참가한다는 것 역시 지구경제에 용이하게 적응하기 위한 북유럽국가 일부의 의식적 선택이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볼 때 EU에의 가입이 구체적 지구화의 대응이라고 본다면 EU가입은 기존 가입국 내지 후보국 모두에게 정책문제이다. EU회원국은 확대된 EU가 지구화에 대한 구체적 반응을 제공하는데 유리한지 아닌지를 살펴야 하며, 후보국 역시 구체적 EU참여국으로서의 대응이 자신들의 필요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한다. EU는 전 유럽적 이해와 동일하게 추구된 것이 아니라, 서유럽국가의 이해와 유산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이 이해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럽화는 여전히 서구화의 연장선 위에서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EU에서 일괄적으로 추진되는 서유럽의 이해가 중동구 유럽국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셋째, 유럽화와 지구화의 논쟁은 부분적으로 국가 자체가 유럽이나 지구적으로 오는 영향에서 얼마나 강건히 직면할 수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유럽국가 내에서도 유럽화에 얼마나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를 통해서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럽의 내부구조가 다면적이고 복잡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곧 변화하는 국제체제에 대한 유럽적 다양한 대응을 함축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유럽은 유럽화를 통해 EU의 연방화, 즉 유럽질서의 응축된 단일체로서의 중앙기구성립을 추구해 나가겠지만, 이러한 현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EU와 유럽 내 국가 간의 상호역학 및 최근 빈발하고 있는 국가 내 하부 지역단위체의 활성화 역시 유럽의 질서를 다원화하고 민주화하는 적지 않은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개별국가가 자국의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의 상이성으로 인해 EU를 중심으로 한 통합에도 상이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유럽화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역단위체의 활성화 역시 때로는 유럽화에 적극 협조하게 되지만, 때로는 이와 역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과 유럽화의 추진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IV. 유럽화와 세계 권력구도의 변화

1. 지역주의의 세계적 확산

지역주의란 원래 일정지역 내 특정 국가 간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이르는 것이다(김세원, 2004: 586). 이런 점에서 유럽화 역시 지역주의의 한 지류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 유럽화는 미국화라는 거대한 지구화의 상징에 맞서서 제동을 걸어주는 가장 영향력 있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화는 단순히 유럽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세계적인 지역주의의 상징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유럽화는 단순히 경제적 의미뿐 아니라 정치, 군사, 문화 등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복합개념이라는 점에서 지역주의의 확산을 넘어 미래지향적 대안 정치과정으로서의 중요성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유럽화는 아직은 미국화라는 지구적 범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만큼 유럽화는 지역주의의 일환인 것이며, 유럽적 경계를 통해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통한 배제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한계점도 적지 않다. 따라서 어찌 보면 유럽화는 유럽지역의 통합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달성이라는 유럽적 이해를 충실히 대변해 주는 대신, 범지구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이란 대의에는 역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필요하다. 즉 현 세계질서를 수행하는 지구화의 표준으로서의 미국화가 세계적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동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미국적 세계질서의 기준, 즉 현 지구화의 추진이 세계질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보다는 일개 초강국의 욕망만을 충족하는 과정으로 전개되는 것이라면 유럽적 지역질서의 제동은 이기적 산물이라기보다는 세계질서의 순행을 위해서도 일정지역의 불가피한 대안적 선택일 수 있다. 아마도 유럽화라는 지역주의가 타 지역의 모범적 선택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이러한 논리선상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유럽화는 유럽지역화를 견인하기 위한 독자적인 정치체를 창출해 내었다. EU로 대변되는 이 정치공동체는 아직은 완결적 존재가 아니라 구성중인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나 EU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유럽 국가들이 하나의 유럽건설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통합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유럽화라는 지역주의가 성립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해 왔다. 이러한 EU는 다음과 같은 2가지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제경제관계 일반에 대한 전망이다. 2차 대전 후 미국과 함께 GATT 설립을 주도한 유럽 국가들은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미국의 자유무역논리에 입각한 무차별원칙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다시 말해 소규모 경제로 구성된 유럽의 경우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지 않으면 장차 생존에 불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GATT와 WTO 예외조항은 이러한 유럽적 희망이 미국과의 타협에 의해 성립된 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적 예외규정은 자유무역의 대의를 훼손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타 지역에 대한 또 다른 예외규정을 확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와 아울러 EU의 경제영역 및 역외 특수관계 역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대상이다. EU는 그 성립 조약에서 규정되고 있듯이 유럽 내 주권국가에 대해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러한 자유를 남용한 국가는 없지만, 유럽 내 역학구도나 대외관계의 변화에 따라 EU의 존재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은 EU의 심화확대로 인한 유럽화의 강화로 이어지기보다는 유럽화의 약화로 귀결될 것이다. 그밖에 EU가 역외 국가들과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주의를 추구하게 된 배경은 식민지 지배에 토대한 특수 관계에서 비롯된다. 비록 EU가 오늘날 식민주의를 추구하는 곳은 없지만, 역사적 식민국가와 특수한 경제관계는 현재에도 여전히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EU는 여타 세계에 대해 지나친 유럽 이기주의의 발로로 비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둘째, 정치적 면에서 EU는 타 지역이 보유하지 못한 역사적 선례를 시험하는 장이다. EU의 성립은 시기적으로 보면, 북미의 NAFTA에 비해 다소 늦게 성립하게 되지만, 실제적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EC의 통합역사는

지구상의 어떤 지역기구보다 오래고, 강한 결속력을 보유한 기구라고 하겠다. 이러한 국제적 초국가기구의 성립(Reid, 2004: 23), 특히 상대적으로 강한 독자적 권위성 내지 주권성을 보유한 권위체의 형성은 여타 지역의 국가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으며, 이후 이들의 지역기구 활성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이해된다. 남미의 MERCOSUR라든지, APEC의 확산, 더 나아가 최근 빈번한 논의의 대상이 된 동북아 협력체 내지 공동체 구상도 이러한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이들 지역기구들은 단순히 경제적 협력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보다 강하고 험난한 지구화라는 파고에 맞서서 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구가하기 위한 정치적 중심체로서의 기능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럽화의 응집체로서의 EU는 어떻게 전개되어 가느냐에 따라 세계적 지역주의의 확산과 연결하여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 EU는 적어도 세계적 지역주의의 상징이자, 확산의 기제가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2. 세계 권력구조의 다중심화: 세계질서의 민주화

유럽화의 포괄적 진행과 그 구체적 실현체로서의 EU는 일면,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강력한 견제력(Rifkin, 2004: 36)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계의 권력중심이 미국편향적인 일원적 구도가 아닌 다원화에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은 유럽화가 곧 세계 권력의 중심축을 유럽으로 전환했다거나, 미국의 중심성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절대적 우위 속에 진행될 수 있는 제국적 단일성에 대해서는 유럽화가 일정정도 견제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세계권력의 중심이 단일적 세력에 의해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다원화하고 있다는 것은 곧 세계질서가 수직적 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민주주의 질서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아직 세계질서는 유사한 힘의 균형을 가진 지역이나 세력으로 다원화 되어 있지 않으며, 그만큼 힘의 중심이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것은 역으로 현 세

계질서는 특정세력에 의한 힘의 집중으로 인해 세계질서의 수직적 체계화가 견인되고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국내체계와 마찬가지로 세계질서에서도 힘의 집중은 권력의 독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질서의 균형이 불안정하게 자리매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맥락을 보면, 유럽화는 세계질서의 중심축을 다원화하는 적지 않은 시도로 보이며, 이러한 유럽화에 힘입어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는 결국 세계질서의 다원화와 직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유럽화로 인한 권력분산과 그 결과 생성되는 지역주의로 인한 다원화는 곧 세계질서에서 힘의 분산을 의미하며, 세계정치에서의 민주화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고민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세계질서가 다원화, 민주화되면 그것이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것은 종래 세계평화를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다극이나, 단극이나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다원적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주장한다면 지구적 질서의 다원화, 즉 다극화를 추구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단지 냉전적 이분법의 논리위에서 전개되는 것에 불과하다. 현재의 세계질서는 어차피 미국적 구도 위에서 펼쳐지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는 미국의 단일적 권력독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유럽화와 그로 인한 권력분산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미국의 절대권력화가 가져오게 될 지도 모르는 일방주의와 패권의 횡포를 예방하는 데 있다. 미국에 의해 구현되는 제국적 질서가 미국의 평화(Pax Americana)가 아니라, 이것이 세계질서에 위협적일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화를 통한 권력분산의 시도는 하나의 안전장치, 즉 견제장치의 역할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물론 이 경우 논의되는 권력분산이나 국제사회의 민주화는 모든 권력의 균형점, 즉 동등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상호 상대적 견제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권력의 동적 현상, 즉 변화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미국의 상대적 약화에 못지않게 단일화된 유럽의 상대적 강화 역시 예견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유럽화의 세계적 표준을 의미하게 되지만, 유럽화로 인한 유럽권력의 절대화 역시 지구촌의 질서를 위협한다는 점에서는 견제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의 세계는 양차대전 이후의 냉전시기처럼 이들 두 세력 간의 관계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유럽화가 성공한다면 그 뒤를 이은 여타 지역의 권력분산에의 욕구 역시 적지 않게 국제무대에 작용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유럽화의 진전은 곧 여타 세계질서의 다원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전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절대적 권력, 제국적 권력에 의한 위기 가능성을 막아줄 수 있는 유럽화에 의한 일정정도의 견제장치는 건강한 세계질서의 창출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유럽화는 미국식 지구적 표준에 대한 유럽의 대응이다. 이러한 유럽화는 하나의 완결된 현상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개념을 정의하기 쉽지 않다. 특히 유럽화는 유럽통합 및 유럽지역화라는 시공간적 개념까지 포괄하는 동적 복합개념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을 명료하게 설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유럽화라는 개념이 갖는 포괄성, 진행과정성, 복잡성 등의 장점에 주목하여 유럽화와 세계질서의 변화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이 경우 본 연구가 정의한 유럽화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다방면에서 유럽적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양차대전 전까지만 해도 세계질서의 표준을 제시하며 세계의 유럽화를 꿈꾸던 유럽은 패전 후 생존 자체도 불투명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미국의 협조를 받아 새롭게 부활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은 독자적으로 진행해 가는 유럽화와 범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구화의 표준인 미국화와의 협조와 갈등이 불가피했는데, 이러한 양 현상 간의 동태적 관계는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달리 나타나고 있다. 즉, 유럽화의 초창기에는 지구화로써의 미국화와 순응, 조화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유럽화가 발전·심

화되던 시기에는 전적으로 충돌하지는 않았지만, 미국화로 대변되는 지구화와 부분적 충돌은 불가피했었다. 그러나 냉전질서가 해체되고 새롭게 미국 단일적 중심의 지구화로 재편되는 탈냉전기 이후에 들어오면 유럽화는 한층 심화 발전해 가고, 미국화 역시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유럽화와 지구화의 갈등이 보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유럽화는 지구화와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며, 지구화와 등치되는 미국화에 대한 대립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유럽화는 서구화의 변이로서의 미국화와는 적어도 서구화를 계승, 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공유되고 협조 가능한 개념이다.

그럼에도 유럽화는 탈냉전 후 세계질서를 사실상 재편하면서 세계적 표준으로 기능하고 있는 미국에 의한 미국화의 일방적 전횡과 독점주의를 방지하는 주요한 방과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유럽화는 단순히 유럽적 이해의 응집과 확보라는 사명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 권력의 일방적 독주에 대한 강력한 제동장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유럽화는 단순히 유럽적 현상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범지구차원의 지역주의를 확산하는 선구적 역할도 담당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세계질서의 다원화를 견인해 냄으로써 세계질서의 민주화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정인. 1998.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민주주의』. 서울: 문학과 지성사.
 김명섭. 2001. 『대서양문명사』. 서울: 한길사.
 김세원. 2004. 『EU경제학』. 서울: 박영사.
 노명환. 2001. 『역사와 문화의 차원에서 본 유럽통합의 제문제』.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진시원. 2003. 「유럽의 정체성 - 내외적 동인과 사회구성주의의 이론을 중심으로」. 김계동 외. 『유럽질서의 이해』. 서울: 오름. pp. 43-99.
 佐伯啓思. 1995. 『イテオロキと 脱イテオロキ』. 東京: 岩波文庫. 이은숙 역, 이데올로기와 탈이데올로기. 서울: 푸른숲.

- Borneman, John and Fowler, Nick. 1997. "Europeanization." *Annual Reviews of Anthropology* 26. pp. 487-514.
- Brun, Gerhard. 2002. *Die Europäische Einigung*. Stuttgart: Reclam.
- Buller, Jim and Gamble, Andrew. 2002. "Conceptualizing Europeanisation." *ESRC/UACES Series of Seminars on EBPP*. pp. 1-24.
- Checkel, Jeffrey T. 2001. "The Europeanization of Citizenship?" in Cowles, M. G., Caporaso, J. & Risse, T. (eds.), *Transforming Europe: Europeanisation and Domestic Change*. Ithaca/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Cowles, M. G., Caporaso, J. and Risse, T. (eds.). 2001. *Transforming Europe: Europeanisation and Domestic Change*. Ithaca/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pp. 11-42.
- Deflem, Mathieu and Pampel, Fred C. 1996. "The Myth of Postnational Identity: Popular Support for European Unification." *Social Forces* 75(1). pp. 119-143.
- Dyson, Kenneth H. F. 2000. "EMU as Europeanization: Convergence, Diversity and Contingency."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38(4). pp. 645-666.
- Dyson, Kenneth and Featherstone, Kevin. 1999. *The Road to Maastricht: Negotiating Economic and Monetary Un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vans, Mark and Jonathan, Davies. 1999. "Understanding Policy Transfer: A Multi-level,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Public Administration* 77(2). pp. 361-385.
- Gasteyger, Curt. 1990. *Europa zwischen Spaltung und Einigung 1945-1990*. Köln: Wissenschaft und politik.
- Giddens, A.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Gilpin, R. 1981.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owland, David and Turner, Arthur. 1999. *Reluctant Europeans: Britain and European Integration, 1945-1998*. New York: Longman Publishing Group.
- Howell, Kerry. 2002. "Developing Conceptualizations of Europeanization and European Integration: Mixing Methodologies." *ESRC/UACES Series of Seminars on EBPP* (November 29). pp. 1-27.
- Kagan, Robert. 2003. *Of Paradise and Power*. New York: Alfred A. Knopf. 홍수원 역, 『미국 VS 유럽 갈등에 관한 보고서』. 세종연구원.
- Lundestad, Geir. 1998. *Empire by Integratio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Integration, 1945-199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rks, Gary, Scharpf, Fritz W., Schmitter, Phillippe C., Streeck, Wolfgang. 1996. *Governance in the European Union*. London: SAGE Publications.
- McGrew, Anthony G. and Lewis, Paul G. (et al.). 1992. *Global Politics*. Cambridge: Polity Press. pp. 21-47.
- Negri, Antonio and Hardt, Michael. 2000. *Empir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 Press.
- Olsen, Johan P. 2002. "The many Faces of Europeanization."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40(5). pp.921-952.
- Norman, Victor D., Horn, Henrik, Siebert, Horst. 1992. "EFTA and the Internal European Market." *Economic Policy* 4(9). pp. 423-465.
- Schmitter, Phillippe C. 1996. "Imaging the Future of the Euro-Polity with the Help of New Concepts" in Gary Marks, Fritz Scharpf, Phillippe C. Schmitter, Wolfgang Streek (eds.), *Governance in the European Union*. London: SAGE Publication.
- Reid, T. R. 2004. *United States of Europe*. London: Penguin Books Ltd.
- Revel, Jean-Francois. 2003. *L'obsession Anti-Americaine*. 조승연 역, 『미국은 영원한 강자인가 - 반미강박관념』. 서울: 일송북.
- Rifkin, Jeremy. 2004. *The European Dream: How Europe's Vision of the Future Is Quietly Eclipsing the American Dream*. New York: Penguin Group Inc.
- Robertson, R. and Turner, B. (et al.). 2000. *Modernity, Postmodernity and Globalization*. 윤민재 역, 『근대성, 탈근대성 그리고 세계화』.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pp. 3-17.
- Shaw, Jo. 1998. "The interpretation of European Union Citizenship." *The Modern Law Review* 61(3). pp. 293-317.
- Smith, Anthony D. 1992. "National Identity and the Idea of European Unity." *International Affairs* 68(1). pp. 55-76.
- Tilly, Charles. 1990.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0*. Cambridge: Basil Blackwell.
- Wallace, Helen. 2000. "EU Enlargement: A Neglected Subject" in Cowles, Maria Green and Smith, Michael (ed.), *The State of the European Union* 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51-186.
- Wallerstein, I. 1979.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ndt, Alexander.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onal Politics*. Cma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ener, Antje. 1997. "Making sense of the new geography of citizenship: Fragmented citizenship in the European Union." *Theory and Society* 26. pp. 529-560.
- Wilson, Kevin (ed.). 2002. *The History of the Idea of Europe*. London: Routledge.

Time, 2005. June 13.

<http://www.encyclopedia.laborlawtalk.com>(검색일: 2005년 1월 8일).

<http://www.eu.or.kr>(검색일: 2005년 1월 8일).

Europeanization and the Possibility of Plural International Order

Lee Hyunkyung

Senior Researcher of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Europeanization is a dynamic and complex concept that embraces the spatio-temporal concept including european integration and european regionalism. And it is also a continuing process up until today. The imperfection of europeanization as a process can be converted to the advantage that this concept has a capability of continuous expansion and development. On this point, this article has shown the interconnection through a comparison among concepts like europeanization, globalization, americanization and westernization.

In general, the concept of Europeanization was formed after World War II. But its origin could be traced back to the 19th century when Europe had extended its realm of activity to the world. Europeanization can be understood as the same concept of westernization and globalization in this process. Europe was the standard of world in this period, so europeanization was not brought into relief. While globalization has been converted into americanization, europeanization was not the same concept as globalization. Rather, it was changed into the sub-concept or discordant one against globalization sometimes. The concept of standard is introduced in this phase. That is to say, globalization is also the dynamic process of implementation by the state which can establish the world standard. Therefore, concepts like europeanization, westernization and americanization are the result of subject's change which sets the world standard.

While Europe has tried to pursue its own europeanization, europeanization and americanization as the standards of globalization have shown cooperation or inevitable conflict. The dynamic and tens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phenomena is not always consistent, but has appeared differently over time. That is, in the first phase of europeanization, this concept had smoothly harmonized with globalization. In the second phase, the period of europeanization's development and deepening, these two concepts collided in part even though they were not

completely confronting each other. After dismantlement of Cold War, the world order has been newly reorganized by focusing on globalization as the American standard. In this third phase, these two have shown much more conflicts because europeanization has become stronger than before.

However, europeanization has implemented a very important role as a bulwark to prevent the monopoly or hegemony of United States. In the light of this point, europeanization is not only a mission for cohesion and maintenance of european interests, but also a strong brake against the unilateralism of global power and a mechanism to proliferate of world democracy.

Key Words: Europeanization, globalization, European integration, European regionalism, world democracy, world pluralism, American standard, European standard, world standard